

남북청년들 '통일일꾼' 됩시다



통플스테이에 참석한 청년불자들이 신계사 대웅전 부처님께 통일 108염주를 올리고 있다.



통플스테이 정우식 준비위원장(맨 오른쪽) 등이 통일노래에 맞춰 율동을 하고 있다.

작업이다. 서툰 솜씨지만 한 알 한 알에 정성을 쏟는다. 이 때 난데 없이 일요일회에 참여했던 22사단 율곡부대 김정준 병장이 봉서루에 뛰어 올라왔다. 염주를 같이 꿰겠다는 것이다. 조계사 사회국장 범성 스님 옆에 앉아 108염주를 만든 김 병장은 "3개월 후에 재대하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년 통플스테이에 꼭 참여하겠다"고 기업을 토했다.

#3행시로 통일 발원

14일 오후 건봉사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드디어 금강산에 도착했다. 대부분 북한평은 처음이다. 이번 통플스테이에 최연소로 참가한 경배(16·과천 문원중 3)는 "통플스테이를 계기로 주위 친구들과 통일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눠볼 생각"이라고 말한다. 여장을 풀 참가자들은 다시 해금강호텔 연회장에 모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통일 3행시 짓기, 금강산과 신계사를 제목으로 시를 짓기 위해 다들 여념이 없다. 9개조의 대표 3행시와 각 조원들의 3행시가 발표된 가운데 금강산을 주제로 한 8조와 남윤경씨(29·서울시 성동구 금호동)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남씨는 "금은보화 다 줄테니 내말만 들어라 강대국의 농간에 허리 잘린 한반도 산도 알고 강도 아는 조국의 아픔 통일발원으로 날려버리자"를 발표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내년엔 남북청년 함께 하길...



8월 16일 해금강에서 통일을 발원하는 청년불자들.

서울에서 성대한 8·15민족대축전이 진행되며 8월 15일, 통플스테이 참가자들은 북한불사가 한창인 금강산 신계사를 찾았다. 아직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지 못했지만 방문 자체가 무한한 영광일 뿐이다. 버스에서 내려 삼보일배로 대웅전까지 간 참가자들. 더위로 샤워를 한 것처럼 붉은 땀방울이 쏟아진다. 자리를 정리하고 '청년불자 통일 기원 법회'가 시작됐다. 신계사 도감 제정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북한 내 68곳의 사찰이 복원되고 또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통일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청년불자들이 더욱 진전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상 스님은 봉사사 포교국장 견진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남과 북이 무차화합의 정신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청년불자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통일기원 108배를 올린 참가자들은 미리 준비한 통일발원문과 통일염주를 부처님께 올리며 진정한 통일일꾼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땀방울이 맺힌 얼굴로 마지막 날 해금강을 찾은 청년 불자들. 이들은 결코 나뉘질 수 없는 결투를 바다를 보면서 내년에는 반드시 남북청년들이 함께 통일을 발원하자고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글·사진/금강산=유철주 기자

남측 청년불자 108명 금강산 건봉사·신계사서 평화통일 발원

제1회 통일템플스테이 현장

광복 60년을 맞아 청년 불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남북 통일을 발원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가 주최하고 대불청 통일추진위원회와 조계사 청년회가 주관한 가운데 8월 13~16일 금강산 건봉사와 신계사 일원에서 열린 '제1회 통일템플스테이'가 바로 그것이다. 통일템플스테이는 '통일템플스테이'를 줄임말.

통플스테이 준비위원회 정우식 위원장은 "광복 60주년을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청년 불자들이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합시다

8월 13일 오후 3시 간단한 교육 후 전국에서 모인 10대~50대까지의 '청년' 불자 108명이 3대의 버스를 타고 통플스테이 첫 번째 장소인 고성 건봉사를 향해 출발했다. 그러나 마음과 달리 서울을 빠져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 차가 막힌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청년

들이 아니다. 각각의 버스에서는 통일노래 배우기가 시작됐다. "가장 낮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우리가 통일합시다~" 처음 듣는 노래지만 웬지 가사가 마음에 든다. 조계사에 다니는 할머니의 권유로 참가한 최희선(20·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씨는 몸을 들쭉이며 열심히 노래를 배운다.

#"통일도 보아야 보시"

7시간 만에 도착한 건봉사에서 첫날을 보낸 불자들이 새벽부터 건봉사 만일염불원에 모였다. 통플스테이 입제식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일제 법문에 나선 건봉사 회주 영도 스님은 통일을 주제로 청년 불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 대견했는지 뿌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통일도 보아야 보시, 남쪽이 좀더 잘 살잖아. 이제는 우리가 보시를 하면서 통일을 준비해야 해!" 시원한 아침공기만큼이나 명쾌한 영도 스님의 법문에 참가자들은 환호와 함성으로 응답한다.

곧이어 진행된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 김용현 전임연구원의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모색과 전망' 특강. 김 연구원은 "6자회담이 재개되고 6·15, 8·15행사가 원만히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냉전



동국대 김용현 박사의 강연을 듣고 있는 통플스테이 참가자들.

의 잔재를 해소하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1시간여 진행된 강연이 끝나자 참가자들은 "백두산 관광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8·15대축전에 참가하는 북측대표단이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것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정성으로 통일 108염주를 꿰다

특강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건봉사 봉서루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108염주를 꿰기 시작했다. 1배를 하고 염주 한 알을 꿰는 쉽지 않은

불경, 금책, 금병풍



실물크기(3.5×5cm, 5×7cm)
 금강경 24매·천수경 12매·반야심경 8매

복상 불호 소영
 장량 신장 가
 의식 사용 용
 도



(관세음보살 보문품) 2폭금병풍 크기 (1폭 가로37cm 세로74cm) (광명진언 지장본원경)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의 99.9%순도의 금으로 만든 초소형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등이 있으며 3.5×5cm 5×7cm 7×10cm 크기로 있어 소장 및 휴대가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한다. 불경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기쁨을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한다.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기도정진 재래용 등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최고급 금병풍(관세음보살보문품, 광명진언 지장본원경)도 제작 판매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722-1850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효능 은행식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은행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특산품의 금강약들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식 온열복대는 약들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될수록 깊숙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과 34개의 썩음을 동시에 시술받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아야만 있어도 정속의 노폐물 배출, 허벅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허벅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의자에 앉아 정시간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이신분에게 적극권장
- 아랫배가 냉한신 분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생명의 빛 생명의 氣

원적외선 "침" 썩음의효능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음을 관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운 물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다용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저렴한 가격의 은행식 온열복대 사용으로 건강을 지키고 임과 질병 등을 예방하고 경수하세요.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